

# 지역발전 백년대계 그린다

## 익산시, 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익산시가 2019년 5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익산발전 백년대계를 그려나간다고 3일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시의 새로운 동력산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는 미래 청사진을 그릴 새로운 사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미래 청사진 실현을 위해 유라시아 철도거점 기반 구축, 꿈이 실현되는 일자리 도시 건설, 신·구도심 균형발전,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익산 건설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호남선·전라선·군산선·장항선 등 4개 철도가 분기하는 전국 유일의 철도역인 KTX 익산역이 남북철도 시발역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점에 착안, 유라시아 철도 거점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 특히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과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 거점 기반구축 사업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방침이다. 꿈이 실현되는 일자리 도시 건설을 위해 청년과 은퇴 어르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도시 원년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일자리,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여성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역과 중앙동 주변에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구도심 지역에 10층 규모의 주민친화형 신청사를 건립해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한다. 또 안전보도 융복합 제품산업,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해 행정력을 결집, 신성장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익산 건설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도별 추진 계획을 통한 푸른 숲 가꾸기에 나서는 한편 '전 시민,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전개해 시민 참여 숲은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또 '활력 익산', '상생 익산', '희망 익산', '품격 익산'을 건설하기



정현을 익산시장은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미래 청사진을 그릴 새로운 사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위한 역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익산 실현을 위해 부채 잔액 오는 2021년까지 전액 상환, 우수·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7100여개 창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남부권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 익산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

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청원제도 신설, 100인 원탁회의 제도화, 도시공원 조성, 펜싱아카데미·실내야구연습장 신축 등에 나선다. 정 시장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계획된 목표가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농촌복지여건개선

### 공동급식 지원 사업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농촌복지 여건 개선을 통해 행복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2019년도 농업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락농정 사업의 일환인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봄, 가을 농번기에 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연간 40일 범위에서 3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사업의 대상 마을은 마을회관 등에 취사시설과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곳으로 11개 마을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 영농작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일손부족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상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익산, 식품산업 메카로... 90개 기업유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익산시에 조성된 232만㎡ 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지난해까지 식품기업 69개사와 연구소 4개소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90개 기업을 유치해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

전문 산업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 2015년 6개사에서 2016년, 2017년로 점차 늘어왔다. 현재 총면적대비 42.4%가량이 차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의 보유가 이처럼 기업 투자를 이

끌어 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본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7개 입주기업이 105명의 인턴을 뽑아 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코트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관과 연계한 국내 투자설명회를 확대하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군산시는 열악한 농촌 환경을 극복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감소

에 따라 인체공학적 편의장비를 확대 보급해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월에 신청 받아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성용 다용도 농작업대 12대

를 지원한다. 체격에 따라 높낮이가 조절되고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가능하며 무게가 가벼운 제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만족도와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3월 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에 대처하고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한방난임치료를 통한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으로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효과 증대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2일까지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다. 익산시보건소는 익산시한의사회와 협력해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3월부터 4개월간 한약재 복용과 침·뜸 등의 한방요법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신청자격은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이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사업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해야 한다. 정부 난임 지정 시술기관이나 익산시 지정한의원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출산기 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한방난임치료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은 물론 임신부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사업단과 통합예술을 운영하고 있다.

##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 행정력 집중

### 군산시는 아트브릿지와 상호 업무 협약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사업단과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주)아트브릿지가 3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미래문화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소중함을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공간과 시장 인근 지역의 근현대 문화를 탐방하고 공설시장을 비롯하여 지역 내 시장체험을 실시하며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돼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극단 동당애의 '판소놀이 허하라 뮤지컬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에 참여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총 5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주로 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 소규모 문화 체험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청년몰 특성화사업에 선정됐으며 이 사업은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어려운 군산경제에 활력을 주고 기존에 설립된 청년몰에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설시장 청년몰 관계자는 "군산공설시장만의 특화된 브랜드 발굴과 내 외부환경 조성, 고객서비스 공간 확장과 청년몰 특화 상품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내 청년몰을 찾는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에 입점을 원하는 청년상인들의 점포 모집을 1월 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각종 평가 총 32개 부문 수상

군산시가 지난해 각종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시장 운영 전 분야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평생학습대상 교육부 장관상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평가 부문 1위 ▲통계청 통계조사 부문 기획재정부 표창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가족대상 서비스 부문 장려상 ▲여성가족부 한인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세계축제협회로부터 군산야행이 대표 프로그램상과 축제기관상을, 국제교육도시연합으로부터 우수교육도시상을 받는 등 총 32개 부문 수상을 통해 22억 4,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